

< 7. 1(금) 조간 (인터넷 6. 30(목) 12:00이후 사용) >



보 도 자 료

- ▶ 2011. 6. 30. 배포
- ▶ 총 5 쪽

▶ 외국인력정책과장 민길수
▶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김성재
전 화 : 02-2110-7189
팩 스 : 504-6729
메 일 : kkk119@moel.go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<e-노동뉴스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1577-0071”,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노동문제 상담한다.

- 7.1.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, 결혼이민자가 현지어로 상담

- 『지난 달에는 일이 밀려 주말에도 일했는데,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.』

『6개월 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?』

-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민을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게 상담해 주는 외국인력상담센터(☎1577-0071, 경기 안산)가 문을 연다.

-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“7월 1일(금)부터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.”고 밝혔다

- 이번 센터 개소로 시간적·공간적 제약 때문에 노동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-0071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○ 이 센터에서는 2개국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노동문제 및 고충 등을 상담해 준다.

- 현재 상담원 25명 중 23명이 결혼이민자이며, 특히 이 중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자도 포함되어 있다.

* 몽골 상담사(자르갈, 29세, 여): 몽골에서 대학(경제학 전공)을 졸업, 한국에서 제조업(프레스·사출업)에 4년 정도 근무한 경험 있음

○ 현재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10개국이며,

- 고용부는 앞으로 상담원을 50명까지 늘려가면서,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의 수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.

* 지원언어: 한국어, 영어, 베트남어, 중국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스리랑카어, 몽골어, 우즈베키스탄어, 캄보디아어

□ 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, 09:00~18:00까지는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 및 ARS 자동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○ 한편, 외국인력상담센터에는 방문상담실도 설치하여 안산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외국인력상담센터 출범은 외국인 13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점, 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.”라고 하면서

○ “센터를 통해서 사업장내 갈등이 줄어들고,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<별첨>

외국인력상담센터 설명자료

1. 목적

◆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함
◆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 (One Call Total 서비스 제공)으로 만족도 제고

2. 사업개요

구 분	내 용
명 칭	외국인력상담센터(☎ 1577-0071)
위 치	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-2번지 에머랄드빌딩 3층
규 모	총면적 1,580㎡(478평)
인 원	50명(현지어 상담원 44, 관리 6)
주요시설	전화상담(65석 규모), 내방상담(13석 규모), 교육실, 심층상담실 등
사업기간	2011.7.1 ~
사업내용	○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위한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상담 -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(영어, 베트남, 태국 등 10개국) 지원 서비스 -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09:00~18:00이고 근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후 즉시 전화로 답변(Call Back)제도 운용 ○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·생활 기본정보 안내

3. 외국인력 체류현황

□ 외국인력 현황

- '11.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35만 명이며
외국 인력은 총 71만명, 이 중 비전문 인력은 약 48만명

총 외국인(1,354,414)										
외국인력(711,861)								유학생 (D-2)	결혼 이민자 ※	기타
전문 인력 (E-1~ E-7)	비전문 인력 (485,657)		불법 체류자	단기취업 등(15,072)						
				단기 취업 (C-4)	산업 연수 (D-3)	기업 투자 연수 (D-8)	선원 취업 (E-10)			
42,587	E-9 (188,968)	H-2 (296,689)	168,545	798	1,909	6,826	5,539	66,081	143,646	432,826

※ 총 결혼이민자는 195,905명 이 중 국적취득자는 52,259명, 국적 미취득자는 143,646명

□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

- 비전문인력은 동남아 등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외국인
19만명(E-9)과,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 30만명(H-2)으로 구성

구 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.4월
일반(E-9)	115,122	134,012	156,429	158,198	177,546	188,968
동포(H-2)	84,498	228,448	298,003	303,005	282,662	296,689

- (업종) 일반 외국인은 주로 제조업(88%)에, 동포는 제조업
(58%), 서비스업(35%)에 상당수 취업
- (국적별)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(28%), 인도네시아(11%), 태국
(11%), 순이며, 동포는 중국(96%), CIS국가 등(3%)
- (기업규모) 비전문인력 사용 기업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,
전체 사업장 중 71%(60,098개)가 10인 이하임

□ 국가별 외국인 체류현황 ('11. 4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구 분	전 체	고용허가제(E-9)
총 계	1,354,414	188,968
중 국	667,488	5,001
베트남	111,495	52,480
태 국	42,080	20,927
필리핀	49,071	21,700
몽 골	30,788	9,270
우즈벡	28,843	11,076
방글라데시	13,328	6,172
인도네시아	29,846	21,255
파키스탄	10,711	4,474
스리랑카	19,436	16,852
네 팔	11,383	7,746
미얀마	5,358	2,877
캄보디아	13,711	7,853
키르기즈	2,693	828
동티모르	482	452
기 타	317,701	-